

14



심수철 선생 (본명: 심일리아)

심수철 선생은 1921년 6월 11일에 원동변강 우부리시 (당시 한인들은 노왕령이라고 불렀음) 빈농민의 가정에서 심용원 씨의 막내막 아들로 태어났다. 심용원씨의 가정에는 아들 형제 딸 형제, 4분이 자라났다. 심수철 선생의 부친은 6형제였는데 1, 2, 3분들은 고향땅 경기도 횡성에서 살아 계시고 아래글-4, 5, 6형제가 쓰런땅 원주에 월영하여 들어와 살다가 6재삼촌은 1929년에 중국에 월영하여 가셨고, 심수철 선생의 부친은 5재분으로 강제이주이후 따슈권은 부근에서 계시다가 1951년에 사망하였다. 심수철 선생의 모친은 1928년에 달척이 사망하여 수철선생은 막형님의 교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다.

심수철 선생은 1929년에 초학교에 입학하여, 초학교를 마친 후 다음 1936년에 초중을 졸업하였는데 동년에 한인 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한인 강제이주때에 학교와 함께 어루하여 가라호 공화국 가살린스크에 들어와 1939년에 사전을 마감하고 그 해에 크슬오르다시에 있는 사범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사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1940년에 힘겨운시에 있는 교원 대학에 전학하여 1941년에 동교대를 필하였다. 교대를 나온 뒤 1년간 남부 가사흐스한 부근이란 곳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1942년에 우즈베크스탄에 이주하여가서

2.
다뉴켄은 주 종합청 구역 볼로딘의 초중에서 교원으로
하시면서 이 시기에 다뉴켄은 4사의 명칭 사대에 입학
하여 동시대 동선학부를 1945년에 필히인 가는 해 가을
부터는 다뉴켄은 주 안기물시 교육부에서 시학으로 일하시었다.
1945년에 조선어 일리에서 해방된후 북오들의 고향 땅에
나가서 조국건설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1946년에
무르베크 교육성의 명의로 조직한 특별감습소에 입소하여 19
47년에 감습을 필히고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 교원으로 파
견 받아 가게 되었다.

1947년에 평양에 도착한 심수철 선생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교육성의 파견에 따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좌교
원으로 1950년에 동족 상잔이 시작될 때까지 일해왔으며
동족 상잔이 시작되자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총참모부군
사 교육국 부국장으로서 1951년까지 제사다가 1951년부터 1962
년까지 조선인민군 간부국 부국장으로서 군사심도도 대좌로 제
했다. 인민군대내 간부들에게 한하여 특히 1956년부터 고위
계 집행된 사상 검문사업은 심수철 선생도 내리 놓지 않고
절치게 되었다. 심수철 선생은 분시 말시 잠란치 않고, 남부말
에 필도없이 배비치기 안고 성의로써 어떤 중좌중령이나
누구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에는 전혀 간섭한일이 없이 사업
만 꾸물하게 하여온 진실한 인민군대 역군이였다. 그러나 어
렇게 진실한 간부로 소련 공화국, 소련가공주의자, 소련식 관
공주의자, 소련말 위대하게 일장하는 사대주의자 하든
간혹을 싸워 간부국 부국장 직위에서 철적식히 육군대학
로써 강좌장으로 강직식히 내리 보내였다. 인민군대내 사
상 검문 사업이 본격적으로 당중앙 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성의

이 독립치고 난관치는 환경에서 진행되자 조선언론은 육군대학은 감직당하고 철직당한 인민군 간부들이 내뿜어 내뿜어와 참관 목숨다가 영영 하직길을 떠나는 결박소였다. 인민군대 내 많은 간부들을 감직하고 철직하여 직립 하바닥-농촌 협동조합, 한광, 광산, 백두산 벌목장에 광영복을 베키고 막로동복을 입혀 내뿜 버내기전 반듯이 (반듯이) 한달만한 기간은 육군대학에 재교양 분리라고 조직하고 그에서 단김을 배배고 자기 갈 길을 가게하였다. 많은 간부들은 여기에서 떠나 감옥이나, 정치범 특별수용소에 갔다가 다시는 가족도 친척도 보지못하고 죽었다. 심수철 선생은 다른 간부들과 꼭 벗어항가지로 육군대학에 내려온지 몇달이 못되니 또 아래로 더 내려가 협동조합에서 승로릉자로서 부산자 숙련을 받으라고 권고하면서 철직시켰다. 이때에 심수철 선생은 벌써 육군대학에 내뿜어 버내 부러 생각하고 있던 결심대로 소련 대^사관에 가서 귀국 신청서와 함께 소련 공민 회복 청원서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장 앞에 제출하였다. 심수철 선생의 소련 공민권 회복에 대한 청원은 9주일 이후 허락되어 소련에 다시 귀국하여 모스크바를 거쳐 당중앙위원회이 파견으로 우즈베크 타슈켄트로 1962년 12월에 도착하였다. 타슈켄트에 도착한 심수철 선생의 가족은 시청의 결정에 따라 무리로 사택을 배정받았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부속한다음 심수철 선생은 간부 사업에 다년간 경험있는 일군으로서 지방산업사 시골공장 간부부장으로 임명받았으며 심수철 부인 박안나씨는 시골공장 기능 재봉공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심수철 선생은 그후 1970년에 시 니사리 명칭 사벌 대학 조선어학부 상급교원으로 초대되어 그 직속에서 1982년 까지 일하시고 그후 은급생활에 넘어가 휴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시 혹은 각군 지도기관들의 초청으로

위신 있는 직외강사로 계속 일하시였다. 심 선생은 사대
 교수로 일하시면서 자기의 정치리론적 수준을 더 높일 줄을 놓이지
 않아 1972년에 다뉴겐즈 당중앙고급학교 말스-네인주의 야간
 학부에 입학하여 2년 반 공부하고 1974년에 졸업하시였다.
 선생은 직외강사로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에서 조직한 한글
 공부 강습소들에서 한인들에게 열심히 한국어로 배워 주면서
 한인들에게 대한 예절, 풍습, 전통에 대하여서도 강의하는
 한편 또 조선의 력사강의도 증하시였다.

심수철 선생은 한인들의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운동에도 열
 성적으로 참가하시면서 1990년 초련에 살고있는 한인문화
 중심조직에 관심을 두시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초련한인문화
 중앙조직에 대한 창립대회에 참가하시였으며, 1991년
 에 모스크바에서 조직된 초련국제 전북한 혁명리 유가족후
 원회 조직 창립 대표자 회의, 또 1992년 정월에 진행된 조
 국 평화통일 구국전선 창립회의에서 적절할 한의견 의견들도
 표시하시면서 실무적인 문제해결에 열중하시였다.

이상에 열거한 한인들의 공개 단체가 조직된후 심수철
 선생은 팔을 걷고 사업하시였다. 새로 조직된 유가족후원
 회 및 민주통일구국전선 수르백한 지구 조직부장으로 계시
 면서 북한에서 살수없어 경제적으로 버지없는 동포들에서 아이
 들을 데리고 당시 초련에 피도착한 유가족들은 당시 아무런
 조직도 없이 전 수르백한 전역에 살피하여 살고 있었다.
 이 가족들을 적발하고 총계를 잡는 문제는 હત지않았다.
 심수철 선생은 곳곳에 편지를 써보내고 전보로 해서 문버하든
 한편 많은 지방들에는 직접 찾다니며 하나 하나씩 직접
 방문하고, 총계를 잡게되여 유가족 후원회 사업회 체계로 설
 입하였으리다 많은 유가족들을 대해에서 헤매고 있는 동포

사귀 모양으로 고독 적막하게 살다가 유가족 후원회가 성립
되어 자기 뜻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고향 떠돌은 세월
이 한가슴에 북받쳐 들끓는 눈물로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심수철 선생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그 시각 전까지는 우
구도 여러 보지 않던 사람들을 많이 찾아 유가족 후원회 무주
백 지구 1명 단에는 54세대, 62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금일 현재에는 유가족 세대수는 35세대에, 31명의 성인
할머니들과 4명의 불구자 권은 여들이 병상에 기입되어 있다.
심수철 선생은 유가족 후원회와 구 국권선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젊은 세대들에게 조현어를 배워주기 위하여 한글을 연구하는 반을
조직하고 1주 2번씩 출근하여 배워주곤 하였다.

심수철 선생은 1990년 6월에 한국 사회 130 문화방송의
초청으로 당시 "노년공공노인단"이란 명의로 처음 한국을 방
문하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심수철 선생은 한국어를 잘하는 분으로
어디로 가든지 라디오나 신문기자들에게 취재를 받음하는 데
회자가 되어 우차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가지 서울신
문들에 내용이 담보한 기재들이 실리게 되어 독자들을 하여금
노년에 대하여 각방명으로 글이 알게 되었다. 심수철 선생은
북한공산권 흥취회에서 15년간이나 살아 왔으나 늘 권한 자음
1인구를 호대호한 정취제로 자본권의 세로라 얼마나 생기발
발라라 권취정제 발전에 전방성이 있으며, 그러한 길로간
남한은 단기간에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들을 달성하
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번영과 행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직위강하여서 고원선
심수철에게 아주 훌륭한 사실적 재료를 주며 선생의
실지 활동에 더 많은 행동의 강령으로도 되었다. 한국
방문 이후 심수철 선생은 자기가 살고있는 두로백한의 권취
정제 정취들은 한국에 널리 알림으로 한국자본의 대외권을

에 방조를 줘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우르베크한 제 검열 법령과 새로운 공화국의 새 정책에 대한 제 검열 등으로 한국말로 번역하여 출판하도록 노력하였다.

그가 직접 번역한 책들은 "우르베크한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후자에 대한 절차와 그의 실제적 실행 절차," 우르베크한 대외 대내 정책에 대한 문제로 "브라투다, 끄스볼쓰카야 브라투다, 이스베 쓰저야 기사들과 몇 외국 기사 단과의 이볼라르 가리모브 대 총령의 회담," "새 집을 짓기 전에는 낡은 집을 허물리지 말라"; 우르베크한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이력사, 등 소설과들은 서울에서 대략 출판되어 전파 되고 있다.

심수철 선생은 조국 통일 구국 전선이 조직된 첫날부터 그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현재까지 계속사업하고 계신다 1994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리었던 구국전선 제 2차 대회의 대표자로 참가하게 되어 서울로 출발시 하뉴게호 공항에서 불의에 의해 압병되어 발각되어 출발을 중단하고 집에서 약 3개월간 치열한 투쟁적인 몸으로 러시아 공화국 로스도브시에 머물러 살고 있는 곳으로 휴양하러 가서 여태까지 계속 그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심수철 선생은 규일에도 별로 뛰지 않고 많은 신문지료들을 각종 신문에 계속 투고하고 있으며 한인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심수철 선생은 로스도브에 살고 있는 아들 하나와 하뉴게호에 살고 있는 딸 3명에게 있었으며, 부인 박안나는 건강한 몸으로 심수철 선생의 건강에 대하여 크다란 관심을 돌리면서 하뉴게호에도 종종 출동하시곤 한다.

1997. 4. 20. 장영웅